

역설과 모순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세계: <당신만을 위한 말>

April, 2017 | 박세미 기자

14
News

역설과 모순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세계: <당신만을 위한 말>

A World of Objects faced by Paradox and Contradiction: 'Words Just for You'

사물의 상태와 물성 다른 개념미술가 안규철 개인전 열려

개인적 문제의식과 시대적 고민 함께 녹인 작품들

'머무는 시간', '두 대의 자전거' 등 설치 작품 외에 회화 작품도 선보여

1992년 첫 개인전을 연 이래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삶의 이면을 드러내는 개념적인 작업을 선보여온 안규철의 개인전 <당신만을 위한 말>이 지난 2월 21일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난해 관람객 34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운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가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성 전시였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사물의 상태와 물성을 다루며 개인적인 문제의식도 찾아볼 수 있다.

작가는 'LIFE+ART=LIFE'와 'LIFE-ART=LIFE'를 나란히 내걸고 전시를 시작한다. 'ART'가 아무것도 아니어진 성립되는 이 식은 예술가로서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전복시키는 질문이기도 하다. 지난 전시에서 커다란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어항의 '아홉 마리 금붕어'가 눈길을 끌었다면, 이번 전시는 벽면에 설치된 나무 레일과 그 레일을 따라 공이 구르는 '머무는 시간'이 관객의 발을 붙잡는다. 미세하게 기울어진 레일은 공이 땅에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관객에게 약 3분여의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바로 옆 벽면에는 진회색의 커다란 부조가 블랙홀처럼 붙어 있다. 전시의 제목과 동일한 작품인 '당신만을 위한 말'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굴곡을 이루는 표면의 재료가 소리를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 펠트 천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이 부드럽고 따뜻한 벽 앞에서, 하지 못했던 자기 고백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말을 들려보라고 권유한다. 누구의 이야기든 모두 다 받아들여주는 처절한 귀이면서, 침묵을 들려주는 입인 셈이다. 1980년대처럼 금기에 대한 검열과 억압은 없으나, 엄청난 소음과 잡음 속에 실제로 들을 소리, 꼭 해야 할 말들이 울려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오늘날의 붐빔을 생각하면, 안규철의 '당신만을 위한 말'은 동시대적 임무를 갖고 태어난 오브제 같다.

이 외에도, 소리와 신호의 기능이 제거된 '과묵한 종', 배 젓는 노를 다리로 가진 '노/의자', 네 개의 바퀴를 담고 있는 '상자 II', 손잡이는 손잡이끼리, 안장은 안장끼리 붙어있는 '두 대의 자전거' 등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모순'과 '역설'이라는 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작가로서의 갈등도 내포되어 있으며, "잘못 배달된 선물처럼, 성공의 지점에 왔다고 생각한 한국 사회가 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녹아 있다.

이처럼 전시에 놓인 사물들은 '모순'과 '역설'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 관객들은 작품을 관람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전시장을 나와서도 이 공식을 대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말'을 들은 것. 전시는 3월 31일까지. <박세미 기자>

Ahn Kyuchul, who presents conceptual works revealing the background of life through ordinary objects, opened his solo exhibition 'Words Just for You' on Feb. 21 at Kukje Gallery. This exhibition deals with the condition of objects and the property of matter, and shows the critical mind as individual, whereas 'Invisible Land of Love', his solo exhibition with more than 340,000 visitors in MMCA last year, was a large-scale project exhibition based on narrative. The exhibition starts with LIFE+ART=LIFE and LIFE-ART=LIFE side by side. This formula is valid if 'ART' is nothing. This is a provocative question as artist, and a question that subverts the artist's identity. *Nine Gold Fishes*, a fishbowl of centric circles, attracted visitors at his previous exhibition, and at this time, *Lingering Time*, in which a ball rolls through a wooden rail on a wall, also drew in viewers. Minutely slanted rail delays are timed as the ball falls to the ground, and provides three 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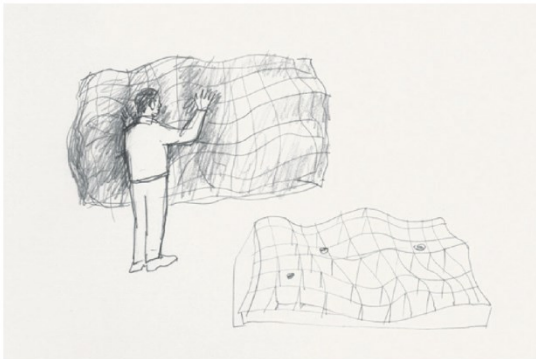
of thought.

On the next wall, a big dark gray relief is attached to create something like a black hall. It is *Word Just for You*. When you take a near view of it, the curved external material is felted cloth which absorbs sound. The artist suggests that you listen to words spoken just for you as a kind of self-confession in front of this soft and warm wall. The wall is a sorrowful ear saturated in everyone's stories, and at the same time, a mouth also emits silence. There is no censorship and suppression on taboo words, as in the 1980s. Thinking about today's loud noise, however, which often buries voices we should listen to and or hear speak, makes us have a feeling of helplessness. Ahn's *Words Just for You* looks like an object created with this mission in mind, a mission of our time.

In addition, the objects in this exhibition have a 'contradiction' or 'paradox' at their heart, such as *Silent Bell* without sound and signal, *Padale Chair*, which has paddles as chair legs, *Box II* containing four wheels, and *Two Bicycle* in which a handle is attached to another handle and a saddle on the another. There is a conflict here as the artist cannot stay or leave, while expressing their critical viewpoints on society. For Korean society to be considered a success it must start again like a misdelivered gift.

The objects of the exhibition follow the formula of 'contradiction' and 'paradox'. The spectator can question and answer such propositions in their own way, and after leaving the gallery they can substitute this formula for their own. Then you really heard 'words just for you'. The exhibition is open until Mar. 31. <by Park Semi>

Images provided by Kukje Gallery



(top) Installation view of 'Words Just for You'
(bottom) Words Just for You (drawing for installation)